Sports Science 2021, 제39권, 제3호
Vol.39, No.3, (31)December 2021: 233-240 | http:////doi.org/10.46394/ISS.39.3.27 | ISSN(Online) 2093-3363

실업육상선수들의 계약규정 인식과 인지된 경기력 및 운동지속의사의 관계*

The Relationship among Recognition on Contract Regulations, Perceived Performance and Adherance of Professional Track and Field Athletes

오상원(티케이스포츠 대표) · **장익영****(한국체육대학교 교수)
Sang Won Oh *TK Sports, CEO* · Ik Young Chang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Professor*

요약

이 연구는 실업팀 소속 육상선수들의 계약규정 인식과 인지된 경기력 및 운동지속의사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실업육상팀 선수 2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최종적으로 불성실하거나 불충분한 응답부수 8부를 제외한 총 192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SPSS 2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기술통계분석(discriptive analysis), 탐색적 요인분석(factor analysis),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상관분석(correlation coefficient)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여 자료분석을 진행하였다.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업육상팀 선수들의 계약규정 인식과 인지된 경기력의 하위변인 중 기술수행력은 관계가 있다. 둘째, 실업육상팀 선수들의 계약규정 인식과 운동지속의사는 관계가 없다. 셋째, 실업육상 선수들의 인지된 경기력과 운동지속의사는 관계가 없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cognition of contract regulations, perceived performance and adherance of professional track and field athlet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a total of 192 data was collected from professional track and field teams in Korea. Discriptive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n the SPSS 22.0 statistical program were used to analyze data. The main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re was a partial relationship between the professional track and field athletes' recognition Contract regulations and a skill performance of perceived performance. the recognition of contract regulations affect of the technical performance among the sub-variables of perceived performance. 2) th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recognition of contract regulations and adherance of professional track and field athletes, 3) there was no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performance and adherance of professional track and field athletes.

Key words : Professional track and field athletes, Recognition of contract regulations, Perceived performance, adherance

* 이 연구는 오상원(2021)의 석사학위논문 일부를 수정 및 보완한 내용임.

** ikyoungchang@knsu.ac.kr

Ⅰ. 서론

현대 사회에서의 스포츠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차원으로 그 가치가 커지고 있다. 스포츠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개인의 건강 증진과 여가 활동을 동시에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하거나, 좋은 성적을 냄으로써 광범위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이종우, 2014). 최근 막을 내린 2020 도쿄 올림픽에서도 그 가치가 증명되었다.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서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올림픽을 즐겼으며, 안산, 김제덕을 비롯한 많은 스타 선수들이 배출되었다. 그중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큰 주목을 받은 선수가 있다면 육상의 우상혁일 것이다. 우상혁은 올림픽에서 개인 최고 기록과 한국 신기록을 기록하며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었고, 비록 메달획득에는 실패하였지만, 언론과 대중의 관심은 우상혁에게로 집중했다. 4등을 한 우상혁이 많은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비단 뛰어난 경기력 뿐은 아닐 것이다. 그동안의 육상은 체격 및 체력이 좋은 서양 선수들이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어 왔으며,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우 올림픽 출전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잦았다(윤신혜, 김병식, 2019). 오랫동안 침체기를 벗어나지 못했던 육상계에 세계 4위라는 성적은 대중들에게 매우 놀라운 결과인 것이다(윤은용, 2021).

그러나, 희망찬 한국 육상의 분위기와는 다르게 실업육상 선수들의 현실은 어둡다. 이들은 오랜 기간 동안 불공정한 계약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0년 7월 9일, 한국실업육상연맹은 실업육상팀이 2020년부터 적용되는「한국실업육상연맹 선수 계약 규칙」을 발표하였다. 이 규칙에는 '최초 실업팀 입단 선수의 계약기간은 7년으로 한다.' 라는 조항과 함께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간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즉, 이 규칙에 따르면 최초로 입단한 젊은 연령층의 선수들은 최소 7년을 한 팀을 위해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규칙 내용은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했고,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지난 2020년 10월-11월 경 기존의 규칙을 '선수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한다.(고등학교 졸업 및 대학교 졸업, 그 외 최초 입단 선수 및 이적 선수 포함)'로 변경하였다. 계약기간 외에도, 2021년「한국실업육상연맹 선수 계약 규칙」에 의하면 등급 규정에서 최하 기록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직장운동선수의 인권침해 경험에 대해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실업팀 선수들은 불합리한 일방적 계약과 재계약 불안, 급여 수준, 연차 등 근로조건과 처우가 열악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으며(허정훈, 김은지, 고경훈, 2020), 선수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만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다(한시완, 허정훈, 유현미, 2021).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19년 세상을 떠난 故최숙현 선수의 계약서에는 "계약 만료 후에는 재계약에 있어서 '갑'(경주시체육회장)이 우선권을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이는 계약 기간이 끝나도 선수가 쉽게 다른 곳에 가지 못하고 '갑'이 재계약 우선권을 가진다는 내용이다(조응형, 박종민, 박상준, 2020). 즉, 선수에게 불리한 계약으로, 선수를 팀에 '얽어매는' 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은 선수들에게 있어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한다. 선수들의 불안한 심리적 요인은 인지된 경기력과 직결되며, 결국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신장호, 2015; 김정수, 전재연, 2016; 전민우, 2016; 이정흔, 이명선, 2017). 선수들에게 있어 연봉이란 그 가치를 증명하는 도구이며, 선수 생활을 지속하는 데 있어 경기력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것을 결정하는 계약 조건이 불공정한 과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근원적인 대응책보다는 현상에 대한 외형적인 정책 개선만 제시되고 있다.

이전까지의 실업육상팀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장미연, 2013; 정범철, 2018; 황병하, 2016; 김채영, 2017; 정남균, 2005; 차정근, 2020; 황지현, 2005; 하경수, 2015) 이들의 계약규정과 그들의 경기력, 운동지속의사의 상관관계를 고찰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육상실업선수들의 계약규정에 대한 인식과 인지된 경기력, 운동지속의사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불공정한 계약규정의 심각성을 규명하고 현 문제상황에 대한 면밀한 진단과 대처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실업육상팀 선수들의 계약규정 인식 정도와 인지된 경기력은 관계가 있는가?

둘째, 실업육상팀 선수들의 계약규정 인식의 정도와 운동지속의사는 관계가 있는가?

셋째, 실업육상팀 선수들의 인지된 경기력과 운동지속의사는 관계가 있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실업육상팀 선수 2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을 통해 선정했다. 성별과 나이, 종목에 구애받지 않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루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다양한 연구대상자들에게 설문을 시행하였다. 최종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192)

구분		N(명)	비율(%)
성별	남성	85	44.3
	여성	107	55.7
연령대	29세 이하	94	49.0
	30대	66	34.4
	40대	32	16.7
월 평균 소득	100만 원 미만	45	23.4

	100만 원 - 200만 원	9	4.7
	200만 원 - 300만 원	60	31.3
	300만 원 - 500만 원	58	30.2
	500만 원 이상	20	10.4
육상경력	1년 미만	8	4.2
	1년 - 3년	5	2.6
	3년 - 5년	8	4.2
	5년 - 10년	51	26.6
	10년 이상	120	62.5
소속팀 지역	서울	49	25.5
	경기	58	30.2
	강원	11	5.7
	전라	11	5.7
	경상	23	12.0
	기타	40	20.8
육상 종목	단거리 트랙	48	25.0
	중장거리 트랙	27	14.0
	허들 및 계주	17	8.9
	필드 경기	86	44.8
	복합 경기	14	7.3
가구 총소득	1,000만 원 미만	31	16.1
	1,000만 원 - 3,000만 원	22	11.5
	3,000만 원 - 5,000만 원	73	38.0
	5,000만 원 - 7,000만 원	50	26.0
	7,000만 원 이상	16	8.3
계	192명(100%)		

적으로 불성실하거나 불충분한 응답 부수 8부를 제외한 총 192부의 응답 자료에 기초한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2. 조사 도구 및 타당도

실업육상팀 선수들의 계약규정 인식과 인지된 경기력, 운동지속의사의 관계를 구명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설문지는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묻는 문항 7개와 계약규정의 인식을 묻는 문항 5개, 인지된 경기력을 묻는 문항 20개, 운동지속의사를 묻는 문항 4개로 총 3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변인은 명목척도, 이외의 척도는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활용된 설문지의 구체적인 지표 및 내용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설문의 구성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인구통계학적 변인		· 성별 · 연령 · 월 소득 · 선수 경력 · 소속팀 지역 · 참가 종목 · 가구 총 소득	7
독립변인	계약규정 인식	· 계약 기간에 대한 인식 · 계약금에 대한 인식 · 상벌관계에 대한 인식 · 등급 규정에 대한 인식 · 세칙에 대한 인식	5
종속변인	인지된 경기력	· 기술수행력 · 경기운영력 · 경기자신감	5 7 8
	운동지속 의사	· 운동수행에 대한 지속적 의사	4
계			36

1) 계약규정의 인식

계약규정에 관한 인식은 다양한 사회과학의 분야에서 '조직공정성', '절차공정성' 등으로 인식되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한편, 이 연구에서 다루는 계약규정의 인식 정도는 실업육상팀 선수 계약에 있어 계약에 대한 공정성을 묻는 것으로, 유사한 선행연구가 존재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계약규정의 인식 정도는 연구자와 체육학 전문가 3인 등 4명의 연구진이 전문가 회의를 통해, 「한국실업육상연맹 선수 계약 규칙」의 규정사항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초로 계약 기간, 계약금, 상벌 관계, 등급 규정, 세칙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총 다섯 가지 문항에 대해 공정성을 인식하는 정도를 묻는 설문 문항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설문 문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한국실업육상연맹 선수 계약 규칙에 의한 계약 기간은 적당한 편이다.', 둘째, '현재 한국실업육상연맹 선수 계약 규칙에 의한 계약금은 적정한 수준이다.', 셋째, '현재 한국실업육상연맹 선수 계약 규칙에 의한 상벌 관계는 타당하다.', 넷째, '현재 한국실업육상연맹 선수 계약 규칙에 의한 운동능력의 등급 규정은 타당하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현재 한국실업육상연맹 선수 계약 규칙에 의한 계약금과 계약에 관한 세부규정은 공정하다.'로 구성된다. 총 다섯 가지 문항에 대해 5점 만점의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측정문항에 대한 내적 타당도를 검증받기 위해 실업육상팀 관계자, 선수 각 1인과 논문 지도교수 1인을 통한 문항개발의 적합성을 확보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구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내적 신뢰도 검증을 위한 Cronbach's α를 도출한 결과는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계약규정의 인식 측정 문항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문항	요인적재량	개별 신뢰도	신뢰도
	계약규정인식		
계약규정인식 5	.821	.815	.854
계약규정인식 3	.815	.816	
계약규정인식 2	.790	.826	
계약규정인식 1	.780	.828	
계약규정인식 4	.773	.832	
총분산비	63.344	-	
누적분산비	63.344	-	
KMO: .842, Bartlett 검증: χ^2 : 391.004(p<.001)			

계약규정 인식 측정문항에 대하여 각 문항의 순번별로 '계약규정인식1', '계약규정인식2'...로 명명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위 <표 3>과 같이 단일요인이 도출되었으며 해당 요인을 '계약규정인식'이라 명명하였다. 모든 문항의 공통성과 요인적재량이 .5를 상회하여 적절한 요인화가 이루어졌으므로 판단해 볼 수 있으며 단일요인의 고유값 또한 3.167로 1을 상회하였다. 해당 문항들이 요인분석을 하기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구형성 검정을 수행한 결과, KMO(Keiser-Meyer-Olkin) 측도 값이 0.842로 0.8을 상회하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값 또한 유의수준 .001 하에 유의한 것으로 드러나 변수들이 요인분석이 가능한 요인임이 증명되었다.

계약규정인식을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적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를 도출한 결과, 각 개별 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요인의 신뢰도가 모두 0.8을 상회하여 요인에 대한 신뢰도도 확보되어 이 연구분석에 활용하기 적합한 연구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2) 인지된 경기력

이 연구에서 활용된 인지된 경기력은 최종복(2014)이 선수의 경기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한 설문지를 기초로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설문 문항은 기술 수행력 5문항, 경기 운영력 7문항, 경기 자신감 8문항으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져 있으며, 5점 만점의 리커트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각 .783, .630, .832였다. 이 연구에서 도구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내적 신뢰도 검증을 위한 Cronbach's α를 도출한 결과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인지된 경기력 측정 문항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문항	요인적재량			개별 신뢰도	통합 신뢰도
	경기 운영력	경기 자신감	기술 수행력		
인지된 경기력 10	.825			.804	.845
인지된 경기력 11	.820			.796	
인지된 경기력 9	.800			.807	
인지된 경기력 8	.648			.818	
인지된 경기력 7	.602			.842	
인지된 경기력 14		.902		.659	.825
인지된 경기력 13		.815		.725	
인지된 경기력 15		.738		.890	
인지된 경기력 2			.831	.650	.776
인지된 경기력 1			.828	.713	
인지된 경기력 3			.750	.773	
총분산비	43.644	14.198	11.026	-	
누적분산비	43.644	57.842	68.868	-	
KMO: .830, Bartlett 검증: χ^2=954.803(p<.001)					

인지된 경기력 측정문항에 대하여 각 문항의 순번별로 '인지된 경기력 1', '인지된 경기력 2'...로 명명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원 척도 문항들 중 9가지 문항이 요인적재량 미달로 인하여 탈락되었으며, 요인분석 결과 위 <표 4>와 같이 총 세 가지 요인이 도출되었다. 각 해당 요인을 기존 척도의 분류기준에 기초하여, 요인 1을 '경기운영력', 요인 2를 '경기자신감', 요인 3을 '기술수행력'이라 각각 명명하였다.

모든 문항의 공통성과 요인적재량이 .5를 상회하여 적절한 요인화가 이루어졌으므로 판단해 볼 수 있으며 각 요인의 고유값 또한 모두 1을 상회하였다. 해당 문항들이 요인분석을 하기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구형성 검정을 수행한 결과, KMO(Keiser-Meyer-Olkin) 측도 값이 0.830으로 0.8을 상회하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값 또한 유의수준 .001 하에 유의한 것으로 드러나 변수들이 요인분석이 가능한 요인들임이 증명되었다.

인지된 경기력을 구성하는 각 요인들의 내적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를 도출한 결과, 각 개별 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요인의 신뢰도가 모두 0.6보다 높았으며, 경기운영력의 신뢰도는 .845, 경기자신감의 신뢰도는 .825, 기술수행력의 신뢰도는 .776으로 각 요인에 대한 신뢰도가 확보되어 이 연구분석에 활용하기 적합한 연구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3) 운동지속의사

이 연구에서 활용된 운동지속의사는 나보배(2020)의 선행연구에서 기존의 이찬영(2016)의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것을 사용한 것을 바탕으로, 이 연구의 목적에 맞도록 수정 및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총 4문항의 단일 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내적

신뢰도 Cronbach's α는 .938이었다. 이 연구에서 도구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과 내적 신뢰도 검증을 위한 Cronbach's α를 도출한 결과는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운동지속의사 측정 문항에 대한 타당도 및 신뢰도

문항	요인적재량	개별신뢰도	통합 신뢰도
	운동지속의사		
운동지속의사 2	.945	.874	.922
운동지속의사 3	.899	.900	
운동지속의사 4	.888	.905	
운동지속의사 1	.872	.914	
총분산비	81.242	-	
누적분산비	81.242	-	
KMO: .793, Bartlett 검증: χ^2=631.708(p<.001)			

운동지속의사 측정문항에 대하여 각 문항의 순번별로 '운동지속의사1', '운동지속의사2'...로 명명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한 결과, 위 <표 5>과 같이 단일요인이 도출되었으며 해당 요인을 '운동지속의사'라 명명하였다. 모든 문항의 공통성과 요인적재량이 .5를 상회하여 적절한 요인화가 이루어졌으므로 판단해 볼 수 있으며 단일 요인의 고유값 또한 3.250으로 1을 상회하였다. 해당 문항들이 요인분석을 하기 적합한지를 검증하는 구형성 검정을 수행한 결과, KMO(Keiser-Meyer-Olkin) 측도 값이 0.793으로 0.8에 근접하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 결과값 또한 유의수준 .001 하에 유의한 것으로 드러나 변수들이 요인분석이 가능한 요인임이 증명되었다.

운동지속의사를 구성하는 문항들의 내적 신뢰도 검증을 위하여 Cronbach's α를 도출한 결과, 각 개별 문항에 대한 신뢰도와 요인의 신뢰도가 모두 0.8을 상회하여 요인에 대한 신뢰도도 확보되어 이 연구분석에 활용하기 적합한 연구 도구임을 확인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국에 거주하고 있는 실업육상팀 선수 200명을 대상으로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기입과 불성실하게 응답한 8부의 설문지를 제외한 총 192개의 설문지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프로그램 SPSS 22.0 Version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먼저, 연구대상자의 일번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기술통계분석(descriptive analysis), 설문지의 구성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이용하였고, 신뢰도의 검정을 위한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변인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관분석(correlation coefficient)과 중다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변인 간의 상관관계

실업육상팀 선수들의 계약규정인식과 인지된 경기력, 운동지속의사의 관계를 분석하기 전에, 각 변인들 간의 Pearson의 상관계수를 분석하였다. 단일 차원성이 확인된 각 요인들간의 판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표 6>과 같이 나타났다. 도출된 상관계수의 값이 다중공선성의 기준 계수인 .8 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에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 변인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1	2	3	4	5
계약규정 인식 (1)	-				
경기 운영력 (2)	.104	-			
경기 자신감 (3)	.050	.545**	-		
기술 수행력 (4)	.229**	.421**	.345**	-	
운동지속 의사 (5)	-.015	.485**	.550**	.212**	-

** p< .01

계약규정 인식과 인지된 경기력의 기술수행력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규정 인식과 운동지속의사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지된 경기력의 세 개 하위변인과 운동지속의사 변인 간에는 모두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실업육상선수의 계약규정 인식과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

실업육상팀 선수의 계약규정 인식과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7>과 같으며,

표 7. 계약규정 인식과 인지된경기력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구분	경기운영력			
	B	S.E.	β	t
계약규정 인식 정도	.092	.064	.104	1.446
	R=.105			
	R^2=.011			
	경기자신감			
	B	S.E.	β	t
	.056	.080	.150	.695
	R=.055			
	R^2=.003			
	기술수행력			
	B	S.E.	β	t
	.236	.073	.229	3.248**
	R=.230			
	R^2=.053			

**p<.01

계약규정 인식은 인지된 경기력의 하위변인 요인 중 기술수행력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지된 경기력의 하위 요인인 기술 수행력은 계약규정 인식(β=.229)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변량의 5.3%의 설명력을 보여주고 있다.

덧붙혀 계약규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정도가 기술수행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준화계수 β=.229, 계약규정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정도가 선수들의 인지된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력은 표준화계수 β=.153로 나타난 것을 보아 계약규정에 대하여 공정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식하는 실업육상팀 선수일수록 그들의 인지된 경기력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계약규정의 인식은 선수들의 공식적인 경기에 임하는 데 필요한 경기운영력과 경기자신감에 있어서는 경기에 대한 책임감, 프로의식 등의 요인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전반적인 육상운동에 대한 기술수행능력을 연마하는 데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것은 계약규정에 대한 인식이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더라도 선수들의 경기에 대한 책임감과 프로의식 등에 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실업육상연맹의 계약규정이 선수들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식될수록 선수들의 객관적인 운동의 성과 또한 높아질 수 있기에 이러한 결과는 실업육상연맹이 선수들의 의견과 생각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충분히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약규정이 마련되는 분위기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는 대목이다.

3. 실업육상선수의 계약규정 인식과 운동지속의사의 관계

계약규정 인식이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 계약규정 인식과 운동지속의사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구분	운동지속의사			
	B	S.E.	β	t
계약규정 인식 정도	-.017	.083	-.015	-.207
R			.000	
R^2			.000	

실업육상팀 선수들의 계약규정의 인식 정도와 선수들의 운동지속의사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현재의 계약규정이 불공정하고, 현재 몸 담고 있는 연맹에서의 경기력이 좋지 못한 상황이더라도 선수들이 선택할 수 있는 여타의 선택지(연맹에 소속되어 공식적인 경기를 치르는 것)가 없기 때문에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운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4. 실업육상선수의 인지된 경기력과 운동지속의사의 관계

인지된 경기력과 운동지속의사의 관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 9>와 같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실업육상선수들의 인지된 경기력은 운동지속의사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인지된 경기력과 운동지속의사의 중다회귀분석 결과

구분	운동지속의사			
	B	S.E.	β	t
경기운영력	3.433	3.383	2.649	1.015
경기자신감	1.840	2.024	1.778	.909
기술수행력	2.331	2.031	2.098	1.148
R			.598	
R^2			.358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운동선수들이 자신들의 경기운영능력, 경기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기술을 수행하는 능력을 높게 인지할수록 운동을 지속할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실업육상팀 선수들이 인지하는 경기력이 높을수록 운동지속에 대한 의사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실업육상 선수들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인지된 경기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Ⅳ.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실업육상팀 선수들의 계약규정 인식과 인지된 경기력 및 운동지속의사의 관계를 구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국의 실업팀에 소속된 육상선수 200명을 대상으로 무작위 표본 추출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최종적으로 불성실하거나 불충분하게 응답한 설문지 8부를 제외한 총 192부를 SPSS 22.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통해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실업육상팀 선수들의 계약규정 인식과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를 검증한 결과, 계약규정 인식은 인지된 경기력의 하위요인 중 기술수행력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실업육상팀 선수들의 계약규정 인식과 운동지속의사는 관계가 없다. 셋째, 실업육상선수의 인지된 경기력과 운동지속의사는 관계가 없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계약규정 인식과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는 선수들이 계약규정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인식할수록 인지된 경기력이 부분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다시금 선수들의 운동지속의사도 높여줄 수 있는 기제가 된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계약규정 제정이 보다 선수들의 입장에서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이 연구는 실업육상팀 선수들에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했다는 점에, 모든 체육종목에서의 계약규정에 대한 인식과 선수들의 인지된 경기력, 운동지속의사 간의 구조적 관계로 해석하기에는 일반화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또한, 선수들의 계약규정에 대

한 인식을 연구자의 주관으로 유형화했으며, 해당 척도의 생성과정 중 실제 육상팀 선수들이 인식하는 계약규정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에 연구의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선수들의 입장을 고려한 계약규정 인식에서의 중요점들을 유형화하여 해당 변수가 선수들의 경기력과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다양한 체육종목에서 관련 주제로 연구가 시행된다면 실업팀 선수들을 위한 각종 체육연맹의 계약규정이 보다 선수들을 위한 방향으로 개선됨에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김정수, 전재연 (2016). 청소년 선수의 경기력 영향 심리요인 인식. **체육과학연구, 27**(2), 421-435.

김채영 (2017). **육상 실업팀 선수들의 직무환경이 직무몰입, 직무만족,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서울.

김훈종 (2011). **농구지도자의 변혁적 리더십과 자기관리, 팀 응집력, 훈련몰입, 인지된 경기력간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선문대학교 대학원, 충남.

나보배 (2020). **주관적 건강인식이 운동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 체력증진교실 만족 조절효과.**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강원.

신장호 (2015). **대학 태권도 선수의 심리성향변인과 진로장벽 및 인지된 경기력 간의 인과관계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선문대학교 대학원. 충남.

윤신혜 (2018). **한국 육상 발전을 위한 요인 추출 및 우선순위 분석**. 미간행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서울.

윤신혜, 김병식 (2019). 한국 육상 발전을 위한 우선순위 분석. 한국체육정책학회지, 48, 25-42.

윤은용 (2021.08.01). 우상혁 2m35, 높이뛰기 4위…한국 육상 새 역사. **경향신문,** Retrieved from https://www.khan.co.kr/sports/olympic-asian_games/article/202108012238005#csidx0c2abebd9d1b8f79549f7b5037a9726

이정흔, 이명선(2017). 실업팀 육상선수들의 진로불안이 운동몰입과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70), 371-381.

이종우 (2014). **실업팀 선수의 연봉 결정요인 분석: 개인종목을 중심으로.**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이찬영 (2016). **생활체육 동호회 참가자들의 소비성향에 따른 여가만족이 운동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장미연 (2013). **대학·실업 육상선수의 진로장벽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결정수준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서울.

전민우 (2016). **국가대표 태권도 품새 선수들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방해요인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미간행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울.

정남균 (2005). **육상실업팀 선수의 직무환경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서울.

정범철 (2018). 육상선수들의 성취목표지향성과 성취정서 및 인지된 경기력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57**(5), 141-157.

조응형, 박종민, 박상준 (2020. 07. 09). [단독]최숙현 옭아맨 '불공정 계약'… "선수는 계약해지 이의제기 불가". 동아일보, Retrieved from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00709/ 101884360/1

차정근 (2020). **육상선수가 선호하는 지도자의 역할 척도 개발 및 타당도 검증.** 미간행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서울.

최종복 (2014). **태권도 겨루기 선수의 경기력과 심리사회적 요인의 관계.** 미간행박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전북.

하경수 (2015). 한국 육상 단거리 기록의 정체원인과 개선방안. **한국스포츠코칭학회지, 1**(1), 38-49.

한국실업육상연맹 (2020). **「한국실업육상연맹 선수 계약 규칙」.**

한시완, 허정훈, 유현미. (2021). 직장운동선수의 인권침해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체육과학연구, 32**(3), 391-402.

황병하 (2016). **실업팀 선수들의 자기관리와 자신감이 팀 만족과 경기력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대구.

황지현 (2005). **스포츠 산업으로서 육상경기대회 인식과 스폰서십 활성화 방안.** 미간행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서울.

허정훈, 김은지, 고경훈. (2020). 실업팀 직장운동선수 인권침해 실태조사. **체육과학연구, 31**(4), 728-744.

논문투고일 : 21.10.29 논문심사일 : 21.11.15 심사완료일 : 21.11.26